

세 번째 이야기  
1 1 월 호

# 니가가라 라오스

딘운파라가 전하고픈 이야기

첫 번째,  
딘운의 나몬살이

두 번째,  
라파의 나케살이

세 번째,  
운의 훈송살이

네 번째,  
니가가라  
루앙프라방

다섯 번째,  
개인 에세이



3<sup>rd</sup> Sep ~ 21<sup>th</sup> Sep

PYC(푸딩댄 유스 센터)



22<sup>th</sup> Sep ~ 29<sup>th</sup> Oct

Namone Neua (나몬느아)



31<sup>th</sup> Oct ~ 21<sup>th</sup> Nov

Namone Neua (나몬느아)



1<sup>st</sup> Nov ~ 21<sup>th</sup> Nov

Nakhae (나케)



21<sup>th</sup> Nov ~ NOW

Namone Neua (나몬느아)



21<sup>th</sup> Nov ~ NOW

Nakhae (나케)



21<sup>th</sup> Nov ~ NOW

Phunsung (퐁승)



C.L.C. OF NATIONE NEUA

# 딘운의 나몬살이

니가가라 라오스 1탄







## 딘운의 나몬살이 목차

ㄱ 오스오스라오스

ㄴ 나먼느아  
활동소개

ㄷ 만남, 헤어짐

11월 한 달, 닌운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ㄱ. 오스오스 라오스





## 나. 나먼느아 활동 소개

나-1. 품앗이!!

나-2. 광주시에서 어르신들이??



나. 나먼느아  
활동소개

나-1. 품앗이!!





# ㄴ -1. 품앗이!!

## DIN&WOON 품앗이 현장!



11월달이 되면서 딩과 운은 나먼느아에 머물게 되었어. 여자 단원들은 나케로 가버린 상황에서 남자 단원인 딩과 운은 단순한 노동을 하기로 했어. 특히 지금 한창 농번기 시즌이라 일손이 부족할 따름이야.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기로 맘을 먹고 갔지만 역시나 뜨거운 날씨와 익숙하지 않은 일 때문에 쉽게 지치지 마련이 없어.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마어마한 햇빛을 맡으며 일하는 딩과 실로 가족들



물을 담으러 가는 뒷모습



개울가에서 한 컷!



쉬엄쉬엄 일하는 운 과 실로




드디어 점심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ㄴ-1. 품앗이!! DIN&WOON 품앗이 현장!



한창 진행 중인 농번기 시즌에는 영어 CLASS와 컴퓨터 CLASS 에 자주 보이던 친구들이 하나 둘 씩 보이지 않고 있었어. 품앗이를 도와주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서고 막상 도착을 해보니 CLASS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안 일을 하기 위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 교육이 꼭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무작정 교육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기로 다짐 했어.



ㄴ. 나먼느아  
활동소개

ㄴ-2. 광주시에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찾아오신 광주시 봉사단체 어르신들과의 활동이 우리에게는 색다른 활동이었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셔서 깜짝 놀랐지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한정된 활동에서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열정은 잊지 못할 것 같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배움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맛볼 수 있는 한국의 음식, 익숙한 말투들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어..



'뻘 무 지저' 첫 방문에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돌아보는 어르신들과 스텝!



3일 간의 활동을 기념하며 사진 한 장!! (저 뒤에 DIN 있다~?)



ㄴ -2. 광주시에서 어르신들이?


## ㄴ -2. DIN&WOON과 광주시 어르신들과의 현장!



나먼느아 Primary school에서 미술,음악,체육 활동들을 했어. 또한 스텝의 농장에 가서 함께 농장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community center 보수 공사 또한 함께 했어.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바자회 현장 스텝들과 DIN WOON의 활약으로 나먼느아 어린 친구들과 어르신들까지 다들 사로잡았다는 소문이..

## ㄴ -2. 광주시에서 어르신들이?

## ㄴ -2. DIN&WOON과 광주시 어르신들과의 현장!



조금은 라온아미와 다른 이 모든 활동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이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행복해 하는 나먼나이의 아이들을 보며 목표를 갈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는 걸 느끼는 3일간의 활동이었던 것 같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먼나이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3일이었어.



2달간의 나면보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 만남, 헤어짐





## ▷ 만남, 헤어짐



조금은 아쉬웠던 나먼느아의 두 달 간의 생활을 마무리 하러 나먼느아 스텝들과 함께 마지막 피크닉을 가게 되었어.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1시간 가량을 걸어가 계곡에 도착했어. 도착하자마자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였어. 확실히 어려서부터 일을 하던 스텝들은 불 피우는 일이나 고기를 손질 하는 일이 능숙해서 또 한번 놀랐어... 자 이제 먹고 노는 일만 남았네!!




## ▷ 만남, 헤어짐





## ㄷ. 만남, 헤어짐

A group of people are sitting on large, grey rocks along a shallow stream in a lush, green forest. The water is clear and flows over the rocks.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dense foliage and trees. The scene is peaceful and natural.

처음 시작한 마을 살이 이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도움 받고 많은 것을 배웠던 두 달 이었어. 처음에는 주려고만 했던 것 같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래만 보고 주변을 보지 못했던 두 달 이었던 것 같아. 고마웠고 감사했고 잊지 못할 나뎠느아의 두 달이 었어. 보고싶을거야~



# 라파의 나케살이

니가가라 라오스 2탄



# 딘라의 나케살이

니가가라 라오스 2탄







# 딘라파의 나케살이 목차

ㄱ 오스오스라오스

ㄴ 나케를  
소개합니다

ㄷ 활동보고

ㄹ 개인에세이

11월 한 달, 라파는 무엇을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ㄱ. 오스오스 라오스





# 7. 오스오스 라오스

## FAA의 식탁 (라오룸족)



우리 가족은 라오룸족! 지난 나몬노야 마을과 다르게 민족이 바뀌어서 음식도 많이 바뀌어. 몽족의 음식은 입에 맞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먹지 못하는 것들만 나와.. 예를 들면, 쥐고기, 참새고기, 애벌레, 오리 피, 썬 나물.. 한 일주일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나를 본 우리 가족들이 마켓에서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육포와 라오김치를 사주기 시작했어. 처음엔 LAA(재원)가 부러웠는데 따오인생을 보며 가끔 특식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ㅎㅎ



주식 스티키 라이스



파파야 샐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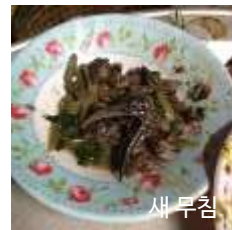
오리피 샐러드



생선구이



야채 끓인 국



새 무침



생선 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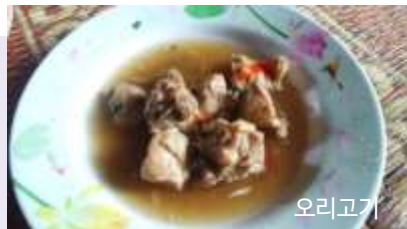
### 특식



돼지고기 육포



라오김치



오리고기

# 7. 오스오스 라오스

## LAA의 식탁 (몽족)



우리 가족은 몽족! 몽족은 따오(고구마 줄기)를 정말 정말 자주 먹어. 지금까지 28끼를 먹었는데 그 중 25끼가 따오 반찬이었어. (영화 울드보이에 군만두가 생각나....) 매일 야채 반찬만 먹으니까 살빠질 것 같다고? 아니. 절대. 우리나라는 밥을 조금 반찬을 많이 먹지만, 이곳 나케는 밥을 많이 반찬을 조금 먹거든. 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오히려 살은 찌고 있어. 지금 내 인생은 따오 인생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 같아. 자 따오 음식의 향연을 보여줄게. 우리집 식탁이야.



볶은 따오



닭이랑 볶은 따오



삶은 따오



고추랑 볶은 따오



라오식 김치



따오 삶은 물



후식은 몽키바나나





## 나케를 소개합니다

- 나-1. 나케는?
- 나-2. 우리가 관찰한 나케



A photograph of two young women sitting on a patterned mat on the floor of a rustic wooden room. The woman on the left is wearing a red t-shirt and dark shorts, and the wo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blue t-shirt and patterned pants. They are both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room has wooden walls and a corrugated metal roof. There are various items hanging on the walls and a wooden table in the background.

나케를  
소개합니다

나 -1. 나케는?



## ㄴ. 나케 소개

### ㄴ-1. 나케는?

특특타고 20분 산길을 오르면 위치한 나케.  
신기하게도 라오스의 세 종족이 함께 사는 마을.  
라오룸과 몽 그리고 크무족.



## 나. 나케 소개

### 나.1. 나케는?





## ㄴ. 나케 소개

### ㄴ-1. 나케는?





나. 나케를  
소개합니다

나-2. 우리가 관찰한 나케





### 라파가 바라본 나케 to



### ㄱ. 3민족(라오, 몽, 크무)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파'의 생각 :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어. 몽언어를 했다가 라오언어를 했다가 우리도 말을 하면 어느새 라오언어, 몽언어를 섞어서 해;;



몽 전통 집



라오 전통 집

## ㄴ. 나케 소개

### ㄴ-2. 라파가 관찰한 나케

#### 라파가 바라본 나케 to



#### ㄴ. 매일 스쿨버스가 운영되는 마을!

'라'의 생각 : secondary, high school이 굉장히 멀어. 나케가 특히나 산골에 위치하기도 하고.  
PYC에서 나케 마을 학생들을 위해 등교길, 하교길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그 전에는 학교가 멀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 진학을 포기하기도 했대.



스쿨버스로 등교하는 아이들





### 라파가 바라본 나케 to



#### ㄷ. 일교차가 크다.

'라'의 생각 : 우리 가족은 보통 새벽 6시에 아침을 먹어. 그래서 아침을 먹으려고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워서 긴 팔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오전 10시부터는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날씨가 되지..

아침7시



오후3시



#### 라파가 바라본 나케 → to



#### ㄹ. 나이반 (촌장) 세 분은 모두 남자이다.

'라'의 생각 : 모든 마을의 나이반은 세 명!

지난 달에 생활했던 나몬드아는 나이반이 남자2분 여자분이었는데,

나케는 나이반 모두 남자 분이시래. 알고보니 여자가 나이반을 하게 된 건 아주 최근에 와서라고 해.



우리 아빠는 나케 나이반1!

나이반2,3은 뵈지 못했지만

나이반2는 30대의 젊은 분이라고 들었어.



### 라파가 바라본 나케 to



□. 매일 밤마다 자발적으로 라오스 어 수업이 열린다.

'파'의 생각 : 우리가 나케에서 지내기 시작한지 2주째 되는 월요일부터 밤 8시부터 9시까지 라오스 어 수업 열리더라고, 우리집 여동생이 저녁을 먹고는 후다닥 공부를 하러가.



## ㄴ. 나케 소개

### ㄴ-2. 라파가 관찰한 나케

#### 라파가 바라본 나케 to



#### ㅂ. 6시가 되면 앞을 볼 수가 없다.

'라'의 생각 :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어두워져서 모든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다녀. 워낙 산골인데다가 가로등도 없으니까. 나케에서 손전등은 모두에게 필수템이야.





#### 라파가 바라본 나케 to



나. 새로운 현대식 집을 짓고 있다.

'파'의 생각 : 우리 집은 집 옆에 기둥을 사서 두고, 다른 집은 바닥을 다져서 기둥을 세웠어. 언제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라오룸의 전통집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 아쉬워..



## ㄴ. 나케 소개

### ㄴ-2. 라파가 관찰한 나케

#### 라파가 바라본 나케 to



#### ○. 중국인들과의 거래가 많다.

'라'의 생각 : 우리 집 바나나 농장이 알고 보니 중국인들이 운영하는거래.

그리고 오늘 우리 첫째 오빠가 채취한 고무를 중국인들한테 팔러 예찬언니 마을인 나몬느아에 다녀왔어.

우리 집 바나나 농장



고무를 팔고 남은 통들 (집에서 한동안 고무 냄새가ㅍㅍㅍ)



## ㄷ. 활동보고

### ㄷ-1. 홈스테이 가족, 집 소개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 라오 룸족과 몽족의 전통집



FAA(예찬)가 사는 라오 룸족의 전통 집



LAA(재원)가 사는 몽족의 집

라오룸 족과 몽족은 의,식,주,종교,언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문화가 달라. 당연히 전통 집도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

왼쪽의 높게 위치한 집이 라오룸 족의 전통 집이고, 오른쪽에 땅 위에 지어진 집이 몽족의 집이야.

예부터 저지대에 살았던 라오룸 족은 습기를 피해 2층에 집을 지은거고, 주로 고산지대에 살았던 몽족은 집을 땅에 붙게 만든거래.

확연히 차이가 나지?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 파(FA)의 가족



- ❖ 아빠 : 손자 사랑이 끔찍하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 ❖ 엄마 : 손이 크신 엄마. 동네 사람이란 사람들은 다 와.
- ❖ 다이 (22) : 나보다 어린데 벌써 아이가 2명이야.
- ❖ 짹 (20) : 예쁜 옷이 정말 많아. 화장도 잘해ㅎㅎ
- ❖ 짹 (18) : 누구보다 나를 잘 챙겨주는 파 전담.
- ❖ 짹 (16) : 아들 하나라 귀하게 컸어. 반지를 좋아해
- ❖ 라(15) : 가족 중에 제일 수줍음이 많아.

“ 우리집은 산에서 벼 농사를 지어서 매일 하나씩 이마와 등을 이용해 쌀가마니를 내려. 한국의 쌀가마니와 비교할 수 없는 크기야.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셔서 4시에 집으로 돌아오셔. 라오족은 몽족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라고 들었는데, 활발한 편인 것 같아.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파(FAA)가 사는 그 집



쌀  
저장소

다  
락  
장

화  
장  
실

- ✓ 방 1: 짹짹방
- ✓ 방 2: 엄마, 아빠 방
- ✓ 방 3: 짹과 내 방
- ✓ 거실: 짹과 라의 방
- ✓ 다른 가족들은 분가해서 살아



## ㄷ.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파(F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집

마루

부엌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 파(F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 ✓ 한국의 방 개념처럼 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과 방 사이는 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 ✓ 방은 진짜 잠만 자는 곳이야.
- ✓ 내 캐리어 덕에 매트 2/3 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방이 더 좁아졌어..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 파(F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 ✓ 부엌 옆의 또다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
- ✓ 빗자루로 청소를 하면 쓰레받이가 필요없어.  
2층이라 사이사이 구멍으로 내보내거든.
- ✓ 우리집 강아지는 거실과 부엌을 누비고 다녀.  
거실 개념이 아니라 마루 개념인가봐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파(F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쌀 저장소



화장실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 라(LAA)의 가족



- ❖ 아빠 : 우리 마을 나이반(촌장)인 우리 아빠.  
오늘 더워 죽으려는 나를 위해 선풍기를 꺼내주셨다.
- ❖ 엄마 : 엄청 귀여운 소녀 같으신 우리 엄마.  
생선 반찬이 나온 날, 내가 생선을 안 좋아하는걸 알고선 촉촉해지셨다.
- ❖ 할머니: 가끔 내가 늦잠자면 '뉘뉘'하고 방문을 두드리시는 할머니.
- ❖ 첫째 아들 : 잘 안 웃으신다, 딸바보다.
- ❖ 이 (첫째 아들 부인) : 나보다 한 두 살 많을 것 같은데 벌써 두 아이의 엄마!
- ❖ 능 (18) :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동생. 그치만 주말에만 집에 온다.
- ❖ 누 (14) : 수줍음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건 전부 '지빠오' 모르겠다고 말한다.
- ❖ 까오(12) : 수줍음이 너무 많아 아직 나랑 눈을 못마주친다.
- ❖ 땡 (10) : 꺼으랑 구별하기 힘들다. 역시 수줍음이 많다.
- ❖ 다오 (3) : 첫째 아들 딸. 마이쥬와 김을 좋아한다.
- ❖ 리 (1) : 첫째 아들 딸. 적어도 이제 나를 보고 울지는 않는다.

“ 우리 집은 나케 마을에서 좀 잘 사는 집 같아ㅎㅎ. 아버지가 나이반 (촌장) 이시기도 하고. 바나나 농장을 한 번 따라갔는데 끝이 안보이더라고. 근데 고무농장이랑 쌀농장이 또 있대. 가족 11명 모두가 수줍음이 많아. 처음 일주일엔 가족 모두 나랑 눈 마주치는 것도 수줍어했어. FA 가족들처럼 먼저 말 걸고 얘기하는 그런 건 우리 집에서 상상도 못해.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시간과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라(L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 ㉔.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입구에서 바라 본 LA 집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그물침대가 있는 평상  
아침에 일어나 그물침대에서 가끔 책을 읽는다.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라(L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LAA방



침대

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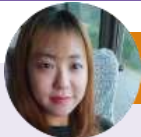
식량

캐리어

택배박스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라(L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방1  
첫째 아들  
가족방

방2  
남동생  
두명방

방3  
여동생들,  
할머니방

방4  
엄마, 아빠방



라(L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부엌







라(LA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 화장실, 샤워실



## ㉔. 활동보고

### ㉔-2 활동 내용



## ㉔. 활동 보고

### 활동 내용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1 나케 도착	2	3	4 영어 CLASS 시작	5	6	7 센터건축봉 사
나케 마을 살이						
8	9	10	11	12	13	14
나케 마을 살이					루앙프라방 수학 여행	
15	16	17	18	19	20 딘나케이동 운푼송이동	21
루앙프라방 수학 여행		나케 마을 살이				
22	23 초등학교 등교 시작	24	25	26 중간평가	27	28
나케 마을 살이				나케 마을 살이		
29	30					
나케 마을 살이						



## 다.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1) 영어 클래스



평일 5~6시면 진행되는 Primary school English class.  
이제껏 아이들이 영어를 말하고 듣는 것에 집중했다면  
라온아띠와는 읽고 쓰는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알파벳 A~Z까지 읽고, 쓰고, 색칠하는 수업을 진행 중이다.

## 다. 활동 보고

### 활동내용

(1)

### 영어 클래스





## ㄷ. 활동 보고

### 활동내용

(1)

### 영어 클래스



평일 6~7까지 진행되는 Secondary & High school English class.  
Primary 아이들과 같이 이 친구들 역시 라온아띠와 읽고 쓰는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학구열이 엄청나다! 영화보는 것 대신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이다.



## ㄷ. 활동 보고

### 활동내용

(1)

### 영어 클래스



## ㄷ.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2) 초등학교 수업



오르막길을 한창 오르면 위치한 나케의 Primary school!  
마을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view가 멋진 곳이다.



## ㄷ.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3) 초등학교 수업

Monday ~ Wednesday

Go to school 8:00

9:00~ 11:30 Computer class to teachers

2:20~ 4:00 Doing the activities with the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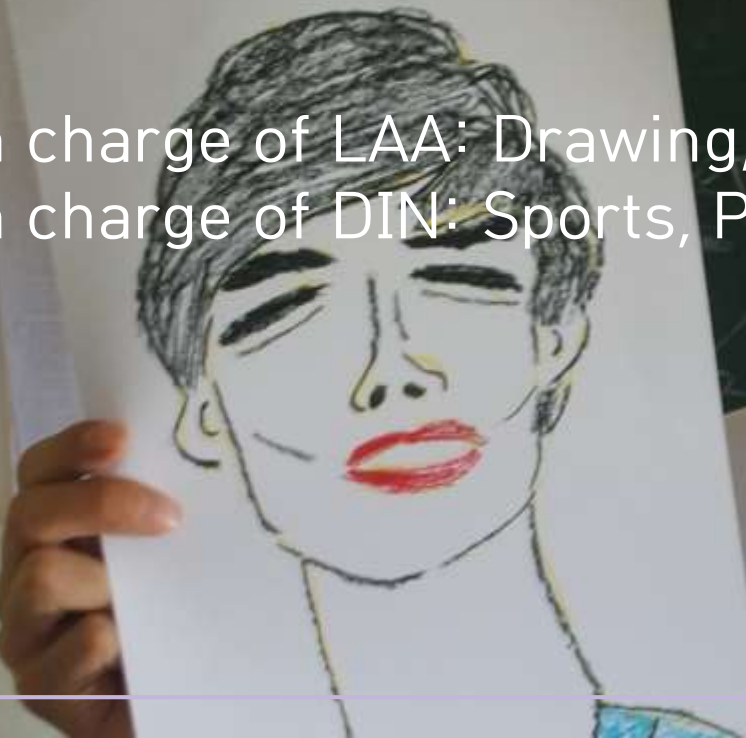


## 다.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3) 초등학교 수업

In charge of LAA: Drawing, Dancing, Sing a song  
In charge of DIN: Sports, Playing game



## 다.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3) 초등학교 수업



첫 수업 날, class5에 들어가 짝꿍 얼굴 그리기 클래스를 진행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림을 너무~ 잘그려서 놀랐다.  
얼굴만 그리는 아이, 몸 전체를 그리는 아이 다양했다.  
특이한건 여자를 그릴 때 귀걸이를 하지 않고 있어도 화려한 귀걸이를 그려주었다는 것이다.  
또 여자아이들은 남자인 짝꿍을 그릴 때 머리카락을 어깨 바로 위까지 길게 그렸다.

## 다. 활동 보고

활동내용

### (3) 초등학교 수업





## 다.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3) 우리 가족 농장

22-11-15 (월)

가족들을 따라 농장에 가려고 일찍 5시 30분에 일어나 평상에서 기다렸다. 아버지가 '케이 씨? (농장 기차) 리고 해서 간다고 행대나 가지 말라고했다. 영아도 집에있으려고 말했다. 또다체 오늘 무슨 할한 일을 하길래. 두려운 마음도 조금 풀긴 했다. 또 누가 갑자기 바깥하게 정화를 산질에 비바나 농장 가는게 맞나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결과적으로는 농장에서 BA군가를 일했다. 비바람에 비바나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끈으로 나무들을 세우고 고정했다. 진짜 이 나무만 세우고 쉬자고 할까? 많이 생각했다. 그런데 이 억울고 일하구나 시군이 가가는 히다라. 힘들었다. 그것도 진짜 힘들었다. 그렇지만 다음 주말에도 또 농장이워서 이렇게 같이 일할까다.





## ㉔. 활동 보고

활동내용

### (3) 우리 가족 농장





## ㄷ.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3) 우리 가족 농장




저저번주에는 바나나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했었다.



## ㄷ.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3) 우리 가족 농장



이번 주는 바람에 바나나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끝으로 바나나 나무를 묶어 세우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다. 라오스 사람들은 체구는 작지만 체력은 엄!!!!청!!!!나다.

## ㉔.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4) 마을 잔치 참여



라오 룬족 동네 태우 오빠네 윗 집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시(Baci) 세레모니가 열렸다. 꼭 우리 라온아띠 두 명이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돼지를 잡는 바시 세레모니에 함께 하게 되었다. 농번기가 끝나면서 점점 마을 잔치가 늘어나고 있다. 덕분에 고기를 먹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 다. 활동 보고

### 활동내용

#### (4) 마을 잔치 참여



24-11-15 (화)

점점 나무심기가 흥겹다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우리 집에 가니깐 내 방 앞에 내 두 배 만한 돼지가 서글픈 눈으로 바다에 누워있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 돼지를 먹는다는 생각에 신났다 당장 아산재 선생님이랑 태우오빠한테 가서 오늘 우리 집에서 돼지를 잡으니까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으라고 할리리 다갔다 나는 우리집에서 잡은 돼지인 줄 알고 내심 우리집 전파 부자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중국인들이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거란다 어섯 가을 정도가 돼지를 부위별로 나눠준다. 어쨌든 나도 바나나 농장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먹을 권리가 있대 태우오빠랑 같이 맛있게 먹었다. 태우오빠는 진짜 맛있게 먹었다. 나는 생강 냄새가 나서 조금 힘들었네.



# 윤의 폰송살이

니가가라 라오스 3탄







11월, 라오스의 밤하늘을 소개합니다.

ㄱ. 오스오스 라오스







라오스의 밤하늘은 정말 예뻐. 밤이 되면 무척 깜깜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이 쏟아 지는 느낌이야. 연인이 아닌 남녀 둘이 와서 연인이 되어 돌아 갈 수 있을 만큼 낭만적인 하늘을 볼 수 있어. 이런 하늘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안타까워 사진으로나마 공유하고 싶어.

남원느아 마을

남원느아 마을

남원느아 마을



푼송 마을



## ㄴ. 풍승을 소개합니다

ㄴ-1. 풍승은?

ㄴ-2. 윤이 관찰한 풍승



ㄴ. 풍승을  
소개합니다

ㄴ -1. 풍승은?





## ㄴ. 풍승 소개

### ㄴ-1. 풍승은?

특특타고 5분, 중앙의 큰 길을 중심으로 평지에 자리한 큰 마을  
라오스의 세 종족 중 라오룸족이 사는 마을

풍승에는  
집과, 여러 개의 샵, 내가 활동하는 센터  
초등학교, 산, 채석장과 농장이 있다.

큰 길을 따라 암석을 실어 나르는 커다란 트럭들도 많다.



ㄴ. 풍승을  
소개합니다

ㄴ-2. 윤이 관찰한 풍승



#### 운이 바라본 풍승 ㄱ to ㄴ



#### ㄱ. 라오룸 한 민족만 살아가는 마을!

'운'의 생각 : 라오스 공용어이자 우리가 라오스어 하면 알고 있는 그 라오언어를 쓰는 라오룸 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야. 석회암으로 이뤄진 방비엔의 아름다운 산들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 경치가 끝내줘.





## ㄴ. 풍승 소개

### ㄴ-2. 운이 관찰한 풍승

#### 운이 바라본 풍승 ㄱ to ㄴ



#### ㄴ. 자동차가 많은 마을!

'운'의 생각 : 남원느아에는 전체 200가구가 넘는 가구 중에 자동차는 단 1대 있는데, 여기는 10가구 중 1가구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 운이 바라본 품송 ㄱ to ㄴ



#### ㄷ. 2층 집과 궁전 같은 집이 있는 마을!

'운'의 생각 : 라오룸 족만으로 이뤄진 마을이라 그런지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좋아보여. 물론 두달 전엔 그런 생각 못했겠지만 라오스에서 산지 3달이 넘어가니 돌로 짓고 페인트 칠한 집은 다 좋아 보여. 이전에 몽족과 라오룸족의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난다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 다 같은 라오스 국민인데 얼른 다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 ㄴ. 풍송 소개

### ㄴ-2. 운이 관찰한 풍송

#### 운이 바라본 풍송 ㄱ to ㄴ



ㄴ. 10톤이 넘는 트럭이 하루에 수백 대씩 지나다녀.

‘운’의 생각 : 마을 안쪽의 산에서 채석하는 중이라 매일 아침 5시 부터 공사장 트럭이 수백 대씩 왔다 갔다 거려. 2달 전에 왔을 때는 공사 시작 전이라 도로 사정이 안좋았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있어서 다니기는 좋아. 그렇지만 아이들이 등하고 할 때도 같은 길을 사용해서 상당히 위험해 보여.





#### 운이 바라본 풍송 ㄱ to ㄴ



#### ㄴ. 채석장이 상당히 많은 마을

'운'의 생각 : 예전부터 채석을 했던 마을이었는지 채석장이 상당히 많아.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네 개를 찾았어. 1번은 현재 트럭들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저기서 채석을 하는거 같아.



1. 현재 트럭들이 향하는 곳에 있는 채석장



2. 가장 최근의 채석장



3. 최근의 채석장



4. 가장 오래된 채석장

#### 운이 바라본 푼송 ㄱ to ㄴ



ㄴ. 매일 아침이면 마을 하늘에 열기구가 보여

'운'의 생각 : 방비엔 시내와 지척인 마을이라서 그런지 매일 아침마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열기구가 보여. 마을에 넓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간간히 푼송마을을 착륙지로 사용하기도해.



## ㄷ. 활동보고

- ㄷ-1. 홈스테이 가족, 집 소개
- ㄷ-2 활동 내용





## ㄷ. 활동보고

### ㄷ-1. 홈스테이 가족, 집 소개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 운(Woon)의 가족



- ❖ 엄마 (65) : 나이에 비해 엄청 정정하시다.
- ❖ 완싸이 (31) : 센터 리더이자 우리집 가장 형님.
- ❖ 이아이 (?) : 완싸이 부인으로 요리 솜씨가 끝내준다.
- ❖ 못 (11) : 수줍은 많은 사춘기 소녀.
- ❖ 미 (5) : 우리집 막내로 친화력이 좋은 꼬마 숙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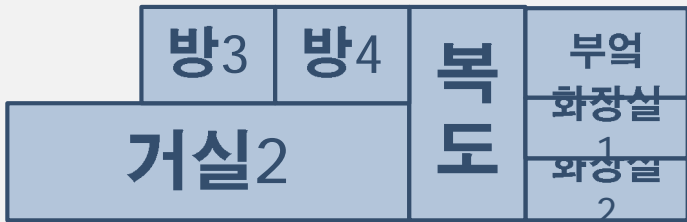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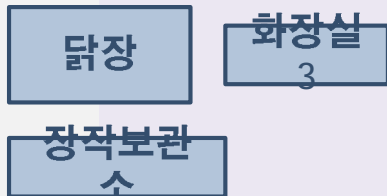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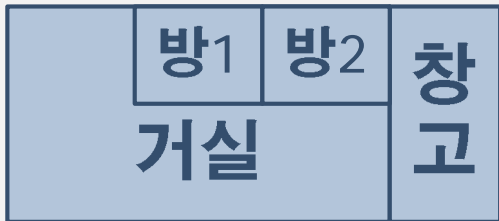
“ 집이 두 채라서 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인줄 알았는데 여기는 모두 라오족이 사는 마을이라 나몬노아에 비해 경제력이 좋은 편이라 이게 평범한거라고 해서 라서 놀랐어. 어머니는 여기선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활동력이 엄청나시고 완싸이는 농사 문에 엄청 바빠. 이아이(누나라는 뜻)는 요리 솜씨가 장난이 나이야. 식사가 한국 부럽지 않아. 완싸이 첫 딸은 이제 사춘기라 그런지 수줍음이 많아서 사진을 잘 안찍으려고 해. 막내 미는 친화력이 좋아. 그래서 금방 친해져서 나랑 맨날 붙어 다녀.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입구



뒷마당

- ✓ 방 1 : 어머니 방
- ✓ 방 2 : 내방
- ✓ 방 3 : 완씨가 부부 방
- ✓ 방 4 : 못 방
- ✓ 거실 : 어머니와 운의 거실
- ✓ 거실2 : 완씨 부부의 거실
- ✓ 다른 가족들은 분가해서 살아



## ㄷ.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입구에서 바라 본 Woon집

## ㄷ.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가

방

기

타

물

캐

리

어

침대

입구

선풍기



## ㄷ.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 ㄷ.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방3 완사이 부부방	방4 못방	복 너	부엌
거실2			화장실 1 화장실 2

## ㄷ.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 부엌, 화장실





## ㄷ. 활동 보고

### '라온아띠'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운(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 창고, 뒷마당



## Ⅱ. 활동 보고

### 활동 내용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1	2	3	4	5	6	7
남원느아 마을 살이					광주 자원봉사센터와 캠프	
8	9	10	11	12	13	14
광주 자원봉사센터와 캠프		남원느아 마을 살이			루앙프라방 수학 여행	
15	16	17	18	19 남원느아 스텝들과 피	20 폰송 도착	21
루앙프라방 수학 여행		남원느아 마을 살이			폰송 마을 살이	
22	23 스텝 가족 결혼식 뒷풀	24	25	26 중간평가	27 중간평가	28 중간평가
폰송 마을 살이						
29 중간평가	30					
폰송 마을 살이						

# 니가가라 루앙푸라방

첫 휴가 루앙푸라방! (수학여행..?)





니가가라 루앙푸라방

DAY-1



# 니가가라 루앙푸라방

## DAY-1



방비엥에서 버스로 7시간을 꼬불꼬불 산 길을 지나 도착한 루앙푸라방.  
저녁은 그렇게 그렇게 먹고싶던 햄버거!





니가가라 루앙푸라방

DAY-1



방비엥에서 버스로 7시간을 꼬불꼬불 산 길을 지나 도착한 루앙푸라방.  
저녁은 그렇게 그렇게 먹고싶던 햄버거!



DAY-2



둘 재날.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의 루앙프라방 수학여행.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왓 씨양통 사원 방문!



DAY-2







14-11-15

라오스 마을살이 딱 그 가운데에서  
루앙프라방 여행 둘째 날에 본 석양



DAY-3

셋째날, 광시 폭포





DAY-3





DAY-3

야시장 쇼핑, 15000꺾 부페



첫 휴가 루앙푸라방편 끝!





# 딘운파라의 개인에세이





## 르. 개인에세이

### DIN의 30일 간의 이야기

벌써 1/2이 지나간 라온아띠의 생활 중에서 가장 나 다운 라온아띠를 한 것 같아 기분 좋은 11월이었다. 지금 바로 앞의 문제를 바라보며 전전긍긍 하는 내가 한심했고 속상했던 첫 두 달이 지나고 11월은 나에게 저 멀리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나답게 나처럼 할 수 있는 달이었다.

이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한발 물러나면 상대방은 한발 다가 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이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털보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가 라오스라고 생각하면 한국이 계속 그리울 것이다.' 이 세상은 선으로 그려진 한 나라의 이름, 고유한 언어, 문화로 각자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보냈던 시간, 추억,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나는 추억에 젖을 것이다. 또한 이 추억들로 인해 현실을 버티고 살아갈 것이다.



## ㄹ. 개인에세이

### WOON의 '30일' 간 이야기

11월 들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신이 조금 불안정한 시기를 경험했는데 육체적 단련을 게을리 해서 더 쉽게 불안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쇠질이 좋아서 매일 같이 헬스장을 들락 거렸는데 라오스에 살면서는 운동하기에 적합한 장소와 기구들이 없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며 운동에 대해 나태해졌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는 명제에 알맞게 간단한 맨몸 운동을 시작했다. 팔굽혀펴기와 맨몸 스쿼트를 하고 나면 확실히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 좋은걸 지금까지 어째서 하지 않고 있었을까 싶다.





## 큰 개인에세이

### WOON의 '30일' 간 이야기

11월 20일, 나의 두 달간의 남원느  
아 마을살이를 마무리 했다. 나는 지  
금 폰송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다.  
폰송에서의 삶을 시작한 지금 라오  
스에서의 삶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것들까  
지 하지 않고 있었다는 뒤늦은 후회  
가 찾아왔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것은 일단 행동으로 옮겨야겠  
다. 애들과 떨어져서 홀로 폰송마을  
로 온 지금은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행동해 줄 수 없다. 말과 생각이 아  
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폰송마을살  
이가 되도록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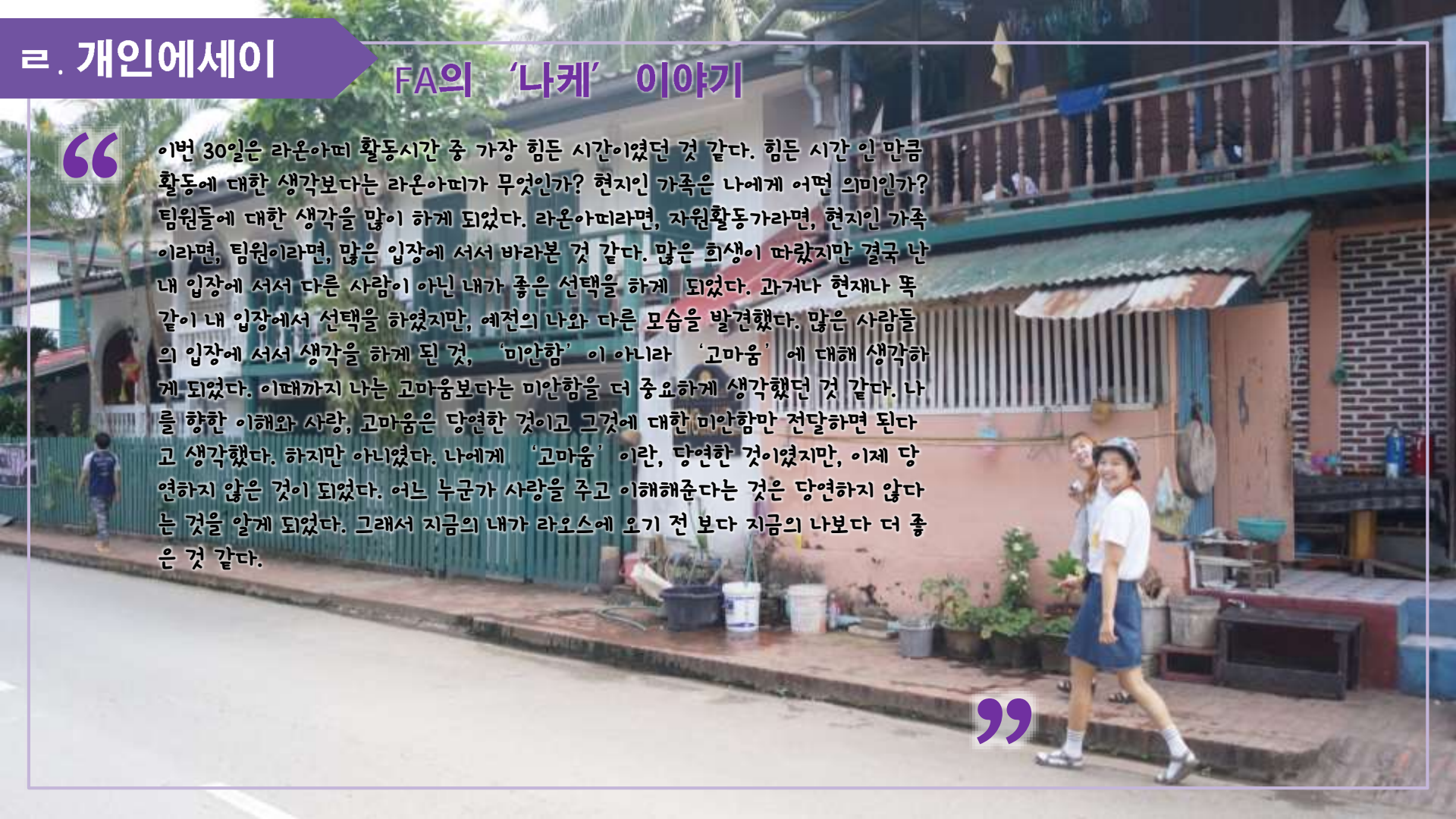
## 르. 개인에세이

### FA의 '나케' 이야기

“

이번 30일은 라온아띠 활동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다. 힘든 시간 일 만큼 활동에 대한 생각보다는 라온아띠가 무엇인가? 현지인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팀원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라온아띠라면, 자원활동가라면, 현지인 가족이라면, 팀원이라면, 많은 입장에 서서 바라본 것 같다.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난 내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 과거나 현재나 똑 같이 내 입장에서 선택을 하였지만, 예전의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된 것, '미안함' 이 아니라 '고마움' 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나는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나를 향한 이해와 사랑, 고마움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미안함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에게 '고마움' 이란,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어느 누군가 사랑을 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라오스에 오기 전 보다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것 같다.

”



## 르. 개인에세이

### LA의 '30일' 간 이야기



#### #다름

한국에서와 정반대되는 삶이다. 할머니, 4명의 여동생 남동생들, 첫째 오빠의 부인 그리고 그 딸들까지 가족만 12명이다. 한국에서 내 가족은 3명이었다. 그 11명과 매일 삼시세끼 함께 밥을 먹고 마주하고 이야기를 한다. 마을이 하도 산골에 있어서 이 마을 밖을 벗어나는 일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딱히 하는 일 없는 이 일상도 시간이 빨리 가네 하는데, 매일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하던 한국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던 거지? 할 때도 많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다. 식재료를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고기반찬은 거의 보기 힘들다. 한국에서 먹던 아이스크림과 햄버거가 너무너무 그립다. 경쟁이 없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도 없다. 나케 삶 속의 여유로움이 고마을 때도 있고 한국에서의 바쁘고 생명력 넘치게 느껴지던 그 삶이 그리울 때도 있다.

#### #외로움

이 곳에서는 그 누구도 외로울 일이 없다. 내 방문만 열어도 마주치는 가족이 여러 명이고 우리 집 마당을 드나드는 이웃만해도 수십 명이다. 모두가 아는 사이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말을 걸고 그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스스럼없다. 이런 공동체 속에 꼬마 아이들이 마을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나고 있고, 그 누구도 외로울 틈이 없다.



## 르. 개인에세이

### LA의 '30일' 간 이야기

#### #공감

공감에 대해 회의를 가졌었다. 누군가를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 한데, 가식이 아닌 진짜 공감이라는 게 있는 걸까? 그런데 10월을 지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일을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걱정하는 나를 발견했다. 지난 두 달 어떤 사건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해 준 것인지는 모르겠다.

#### #마을살이

마을 살이 그러니까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 손님이 아닌 마을 주민이 되는 것. 말이 그렇지 진짜 쉽지 않다.

#### #우리의 미션

라온아띠 라오스팀의 가장 큰 미션은 그냥 열심히 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인 것 같다. 잘 적응하고 잘 어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은 하면 좋은 것. 먼저 이 마을을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일 것 같다.







마을에서 건강하게 생존 만이라도 해있겠습니다!

# 12월에 봐요

간사님 보고 싶어요... 식량 보급이 시급합니다... 라오스에서 뵈요 XD